

5배 커진 무안군보건소 지역보건 거점 재탄생

무안5일시장터에 신청사 신축 이전...지상 3층 1만1155㎡ 규모
체력단련실·영양 실습실·재활운동실에 정신건강센터도 확장

무안군이 복합문화센터 개소에 앞서 보건소 신청사를 최근 준공하고 주민 맞춤형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무안군은 무안읍 옛 무안5일시장터에 보건소를 신축 이전 공사를 벌여 지난달 완공했다고 11일 밝혔다.

무안군 보건소는 지난 54년간 무안군청에서 운영했지만, 지역 보건의 중심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아파트 단지와 상가가 밀집한 곳으로 옮겼다. 무안군은 총사업비 277억원을 투입해 지난 2021년 10월 보건소 공사에 돌입했다.

지하 2층 지상 3층, 건축면적 1745㎡, 연면적 1만1155㎡ 규모로 건립했다. 이는 기존 청사보다 5배 더 큰 규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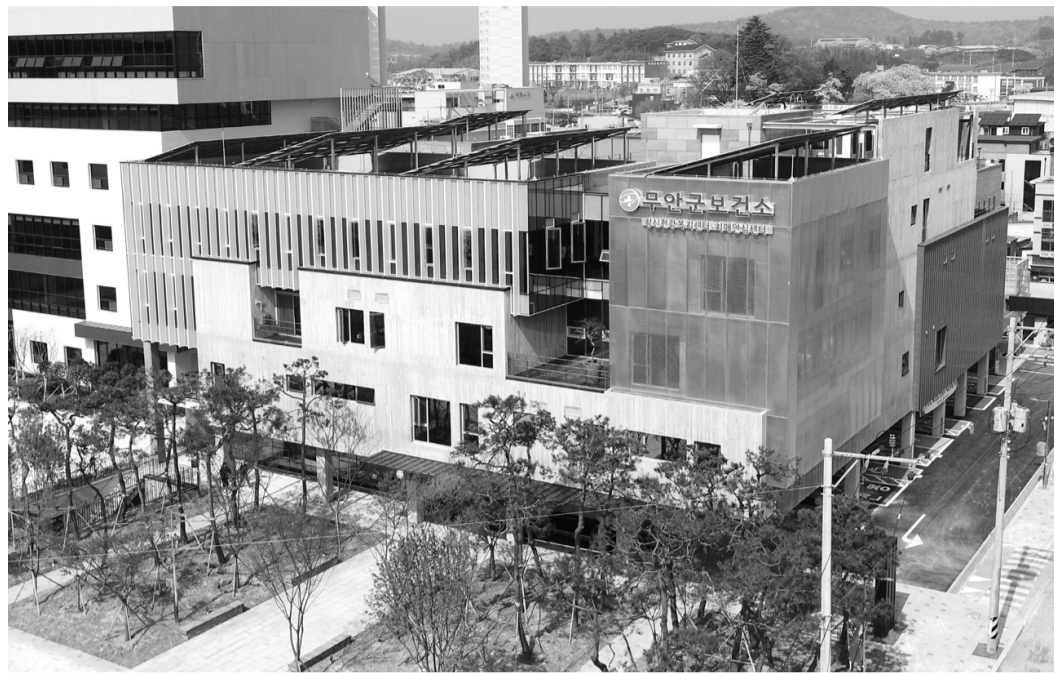
보건소 인근에는 무안군 복합문화센터가 오는 5월 문을 연다.

보건소에는 질 높은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체력단련실과 신체 활동실, 영양 실습실, 재활운동실이 보건소 2층에 새롭게 들어선다.

체력단련실은 20여 종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장비를 갖췄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무안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체 활동실은 비만 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 교실을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건강 체력을 분석한 뒤 맞춤형 운동을 처방한다.

영양실에서는 전문 영양사가 올바른 식습관과



무안 보건 중심지 역할을 할 무안군 보건소가 지난달 옛 무안5일시장터에 신축 이전 공사를 마치고 운영에 들어갔다. <무안군 제공>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을 펼친다. 만성 질환자, 임산부, 영유아 등을 위한 맞춤형 영양실습도 이뤄진다.

재활운동실은 기존 물리치료실에서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재활 의료장비 6종을 갖춰 운영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높일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로 옮겨졌다. 치매 정책과 접목한 차별화된 노후 준비를 위해 상담실, 검진실, 정밀진단실, 인지학습실 등이 있다. 이곳에서는 치매 상담, 등록관리, 치매 선별검사와 진단검사, 치매 환자 지원, 치매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운영한다. 의사가 주 2회 보건소에 상주해 치매 상담과 자문을 진행한다.

보건소 안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기능을 확장한다. 정신건강실을 마련해 등록 회원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는다. 매주 전문의의 개별 상담과 사례별 자문 등을 통한 체계적 관리를 펼친다.

이번 신축 이전을 계기로 방문간호사들은 보건소 신청사로 재배치된다. 방문간호사들은 물리치료사와 함께 2인 1조로 활동한다. 관절운동, 테이핑 치료 등을 하고, 고혈압·당뇨·심뇌혈관질환 등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경로당 순회 의료는 지난해 20곳에서 올해 5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신규 방문대상자를 발굴 관리하고 만성질환, 심뇌혈관질환, 재활, 정신, 치매 조기

목포시민아카데미 23일
소설가 김영하 초청강연

목포시민아카데미의 올해 첫 강연에 김영하(사진) 작가가 강사로 나선다.

목포시는 오는 23일 오후 2시 목포MBC 역전 신사옥 콘퍼런스홀에서 열리는 '목포시민아카데미'에 소설가 김영하씨가 강연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는 '공감과 소통, 그리고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김영하 작가는 1995년 등단한 인기 소설가이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검은 꽃' '살인자의 기억법' '여행의 이유' 등을 썼다. tvN 방송 '알쓸신잡' '세바시' 등에 출연하며 재미있는 입담과 해박한 지식을 선보였다.

이번 강좌에서 김 작가는 소설과 영화, 그 밖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인간에 대한 공감 능력을 확장하고, 깊은 수준의 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 풀어낼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강좌는 공감과 소통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이야기가 주는 힘을 이해하고 인문학 교양을 한층 더 쌓을 기회를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박병길 기자 kyl@



완도군, 템플스테이 접목한 해양치유 선보인다

대흥사와 해양치유 활성화 협약

완도군이 절 체험을 접목한 해양치유를 선보이기로 했다.

완도군은 지난 8일 대한불교 조계종 22교구 본사 대흥사와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완도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대흥사 주지 범상스님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완도군과 대흥사는 템플스테이와 연계한 해양치유 활동을 발굴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다양한 행사와 회의 등에서 해양치유 시설을 활용하고, 해양치유산업과 불교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펼쳐기로 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는 가운데 대흥사와 협약을 맺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양치유를 연계한 프로그램 발굴과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해양자원을 활용한 16개의 치유 시설을 갖췄다. 지난해 11월24일 문을 연



신우철(오른쪽 세 번째) 완도군수와 대흥사 주지 범상스님(왼쪽 세 번째) 등이 템플스테이와 연계한 해양치유 활동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뒤 1만9000명이 다녀갔다.

이달 3인 이상 가족이 방문하면 전체 프로그램 이용료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청산도 슬로시티 축제가 열리는 4월 한 달 동안 청산도를 방문한 관광객이 여객선 승선권을 제시하면 평일에 한 해 1층 프로그램을 3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사도 진행한다. /완도=정은조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해남군 해리동백 어린이공원 플라스틱 소재 놀이시설 철거 친환경 목재 시설로 전면교체

해남군이 공원 어린이 시설을 목재로 새로 단장하며 '친환경 목재 놀이터' 조성에 나서고 있다.

해남군은 이달 해리동백 어린이공원을 새롭게 단장하고 최근 문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서림공원 어린이 놀이터를 고쳤다. 이번 공사에서는 기존 플라스틱 소재 놀이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친환경 소재인 목재로 만들어진 놀이시설로 전면 교체했다.

놀이시설과 함께 탄성 바닥재와 주변 환경도 개선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 놀이터는 친환경 목재를 이용한 조합 놀이대, 기둥목 건너기, 흔들다리 건너기, 터널 통과하기 등을 갖췄다. 어린이들의 선호도가 높은 트랩 필링, 시소, 흔들의자 등도 마련했다. 보호자들을 위해서는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흔들그네, 정자 등을 설치했다.

해남군은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해남읍 내 공원 5곳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 목조건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리동백 어린이공원은 두 번째 대상지로, 올해는 해리신금영 어린이공원 개선이 추진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쫄깃한 간재미 맛보러 오세요 신안 도초도 19~21일 축제

신안 도초도에서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5회 섬 간재미축제'를 열어 쫄깃한 간재미(간자미) 맛의 진수를 보여준다.

신안군은 도초면 화도항 물양장에서 이 기간 '5회 섬 간재미축제'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도초 주민들은 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신안 1004섬의 수산물 홍보와 판매 촉진, 지역민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간재미는 신안 지역에서 주낙을 이용해 잡는다. 정약전의 '자산어보'에 나오는 '간잠어'에서 이름이 나왔다.

이 생선은 손질할 때 물로 씻으면 살이 흐물거리려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막걸리로 세계 문질러 닭아 육질을 연하게 만든 뒤 먹으면 좋다. 초고추장과 채 썬 무, 미나리를 넣고 새콤달콤하게 버무려 회무침으로 즐긴다. 간재미의 부드러운 살과 꼬들꼬들한 물렁뼈가 어우러진 식감이 일품이다.

이번 축제에서는 간재미 껍질 벗기기, 간재미 얇게 썰기 등 방문객의 흥을 돋우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됐다. 지난 2013년 첫 축제를 연 뒤 코로나19 사태를 거쳐 올해 5번째 행사를 연다.

신안군은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선보이고 수산물 산업 활성화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닳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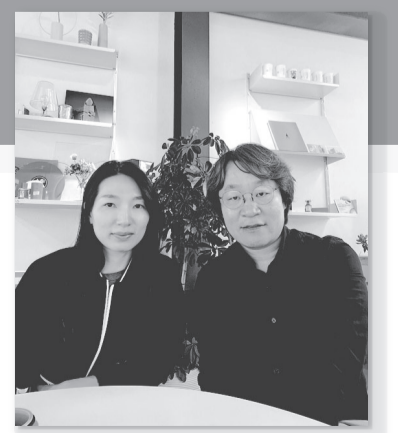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닳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